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행복을 나누는 청소년 리더

제17회 | 여성가족부장관상 | 수원칠보고등학교 고유림

어렸을 때부터 임대아파트에서 살아온 유림이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권유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봉사활동을 했다. 처음에는 봉사활동이 그저 의무감으로 하는 귀찮은 일처럼 여겨졌지만 복지관에서 대학생 멘토를 만나면서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그때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지역 내 독거어르신과 지체장애인을 위한 정기적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복지관 소속의 청소년 봉사단 '드림하이'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우선 임대아파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역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그 첫 시작은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환경정화운동이었다.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홍보지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동네 환경이 많이 깨끗해진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끼리 환경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드림하이의 리더로 활동 중인 유림이는 여러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책을 매개로 지역에서 자란 청소년이 동네 아동들의 멘토가 되어 돌보는 'BOOK-소리' 활동을 비롯해 에너지 절약 캠페인, 독거 어르신을 위한 문화 캠페인 등 지역 캠페인 활동 역시 꾸준히 하고 있다. 특히 <루나틱>, <빨래> 등의 뮤지컬 공연을 지역 주민들에게 선보이는 등 지역 내 소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서 기획력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